

# 환경닷컴 '저자와의 만찬', 《청소력》의 저자 마스다 미쓰히로 걸레를 짤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행운을 불러올 수 있다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환경닷컴이 주최하고 한국CEO연구소가 주관하는 '저자와의 만찬'은 책을 매개로 음식을 나누는 독특한 자리이다. 환경닷컴은 독자와 저자가 만나는 새로운 방식을 구상하던 중에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과의 점심식사'가 이베이에서 고가로 낙찰되는 뉴스를 접하고 영감을 받았다.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차례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역사학자 이덕일 소장, 이메이션코리아 이장우 대표이사, 김훈 작가 등이 독자들과 조우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청소력》의 저자인 '마스다 미쓰히로' 씨와 독자가 만나는 스페셜 만찬이 진행됐다. 대전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네 아이의 엄마 박연화 씨를 비롯해 전준규 씨, 임재도 씨, 김유림 씨, 전현정 씨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저자와 만찬을 갖는 기회를 누렸다. 《청소력》을 번역한 출판사 나무한그루 우지형 대표의 통역으로 진행된 만찬에서 마스다 미쓰히로(39) 씨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며 독자들과 첫인사를 나누었다. 그가 저자로 데뷔한 때는 2005년 7월에 《꿈을 이루는 청소력》을 출간하면서부터이다. 작년 2월에 《실전 청소력(원제 당신을 빛나게 하는 청소력)》이 출간되자 급격하게 팔렸고, 1년 6개월 동안 11종 《청소력》 관련 책이 220만 부가 팔렸다.

"책을 내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저자는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겪으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다. 어느날 고등학교 친구가 집에 놀러왔다가 더럽혀진 집안을 청소해줬고, 친구와 함께 화장실 변기를 닦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환경닷컴에서 주최한 '저자와의 만찬'에서 만난 마스다 미쓰히로(앞줄 오른쪽)와 독자들.

말았다. 친구의 회사에 출근한 마스다 씨는 10여 년간 사무실이나 가정의 하우스 클리닝을 하면서 청소 용역일을 해왔다. 일본에서 청소력연구회를 발족하고 기업환경 정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청소를 실천하고 책을 낸 이후 인생의 호전 속도가 가속화됐다"면서, "걸레를 짤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이 바로 청소력"이라고 설명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음의 마이너스요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의 다섯 단계를 제시했다. 그 다섯 단계는 '환기를 시킨다, 버린다, 오염을 제거한다, 정리정돈, 볏음 소금을 뿌리고 빨아들인다'이다.

만찬에 참석한 독자 박연화 씨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저자로부터 그 에너지를 공유하고 간다"며 흐뭇해했다. 자신이 저자와의 만찬

에 선택된 것에 대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다"는 독자에게 마스다 씨는 일본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사례를 이야기 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신입사원 면접 시 '당신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운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채용됩니다. 자신감 있게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청소에 지친 독자들에게 저자는 '작심삼일법'을 제시했다. 처음부터 3일만 집중해서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하라는 것이다. 3일 동안 청소하고 자신에게 칭찬해주는 작심삼일법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꿈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한편**